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0일 월요일 음 6월 7일 (14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26/33℃
모레	흐리고 비	25/32℃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1~33℃로 예상된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중산간·산지 중심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으니 유의해야겠다.

	해뜸 05:38 해짐 19:43		달뜸 11:42 달짐 23:11
물때	만조 02:33 15:19		간조 09:25 21:28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美, 대이란 공습 확대… 이란도 재보복

보복 공방에 긴장 고조

미군 전사자 발생을 계기로 미국이 이란 상대 보복 공습의 규모를 키우고, 이에 대한 재보복으로 이란이 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 2곳을 공격하는 등 양국 간 무력충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중부사령부는 18일(현지시간) 약 5시간 30분 동안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8일째 연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군사 해안 감시시설과 방공시설, 미사일·드론 창고 등을 타격해 군사 역량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군 2명이 사망한 공격에 가담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부대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19일 새벽 미군의 이란 내 표적 정밀타격.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반시설까지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 2곳의 탄약 창고와 레이더 시스템 등을 자폭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의 무력 충돌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백 금 탁
제2사회부장·서귀포지사장

'불편한 진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저물고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시작됐다. 이들은 서귀포출신으로 제주대와 학생회 활동,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등 정치적인 면까지 '교집합'이 상당하다.

정치적 첫 발걸음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작점은 올해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이다.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는 여러 모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해군기지부터 제2공항 문제까지 굴곡진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외 정세와 장기적 경제침체의 영향도 받았지만, '제주도민은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예"라는 답변보다는 "아니오, 혹은 글쎄요"라는 답변에 무게가 실린다. 지극히 개인적 견해지만 한마디로 '너무 불편해졌다'.

며칠 전, 탐사차 일행들과 평화로로 차를 타고 이동 중, 새별오름을 지나쳤다. 오름 사면에 'JEJU 2026 전국·장애인체전'이라는 큼지막하게 적힌 광고 문구를 보고 일행 모두는 경악했다. "저게 뭐냐" 라며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대화에는 제주의 걱정들로 가득 찼다. 최근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의 '페인트칠 참사'를 비롯해 현재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 섬식정류장, 여전히 외워지지 않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오락가락' 가로수 행정까지…. 모두의 상식 밖 '불편한 진실', 정책 오류에 대한 비판은 쉼없이 나왔다. 그만큼 그동안의 제주도정의 일방통행적 정책 결정에 따른 그 폐해가 도민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심의 괴로움'. 김지하 시인은 흔들리는 그 중심의 괴로움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했다. 온갖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피워내는 꽃은 녹록지 않은 정치와도 일맥 한다. 그 중심에 들어서서 괴로움을 온몸을 떠받치는 모습, 안으로부터의 싸움이 없이는 아름다움도 평화도 없다는 의미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꽃을 피우려면, 지금 제주가 처한 현실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상식선에서 풀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합의가 최우선이며 정책 결정 또한 일방통행식은 앞으로 있어선 안된다.

새로운 도지사가 왔으니, 새로운 정책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리정돈'이다. 유지해야 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잘 정리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새로움만 지향하는 정권교체는 마치 방을 치우지 않고 새로운 가구를 들이는 일과 같다.

이번 민선 9기는 지난 20년간 걸어온 정치 철학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정치의 꽃을 피우기를 간곡히 바란다. 앞으로 있을 행정시장 인선과 제주도 정기인사가 그래서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과거와 다를 바 없다. 도지사 선거 당시 66%의 당선 지지율은 불신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열린마당

제주교육의 현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새기며

장 희 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지난 13~15일 제4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제주교육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주교육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학교가 교과교육의 중심이라면 직속기관들은 독서와 문화예술·체육·인성·리더십·진로·융합과학·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교육지원청은 초·중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는 최일선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도교육청은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동안 제주교육을 밖에서 지켜봐 왔다면 이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안으로 들어가 정책과 예산,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야 한다. 제주교육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 돼 있는지 확인할 수록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졌다.

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대신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으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위원이 되고자 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과제들을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교육위원회 임기 동안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묵묵하고도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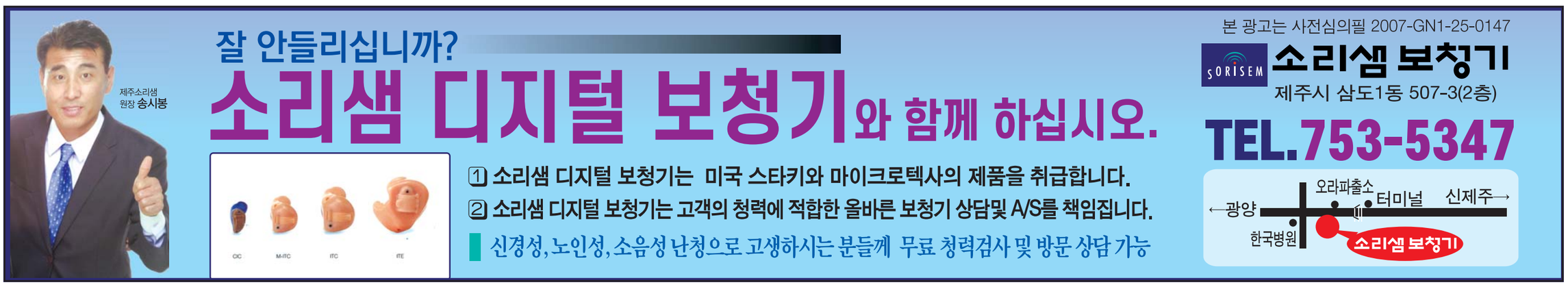
여름철 근로자 건강, 예방이 최고의 안전이다

김 동 영
서귀포시 동홍동 생활환경팀장

여름은 근로자에게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다. 특히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 농업 등 야외나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폭염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위험요인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열경련과 열탈진, 열실신을 거쳐 심한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지러움, 두통, 근육경련, 심한 피로감 등의 초기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작업을 계속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은 '물, 그늘, 휴식'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작업장에는 시원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작업 강도를 낮추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심한 피로감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예방수칙을 실천할 때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다. 올여름에도 모든 사업장이 폭염 예방을 생활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